



---

# 공무 국외연수 결과 보고서

- 이탈리아 · 프랑스 -

---



합천군의회

# 목 차

I. 연수개요	1
II. 연수국가 일반현황	4
□ 국가별 기본현황 (주요도시 포함)	
III. 연수내용 (방문 순서별)	10
□ 이탈리아	
. 로마, 피렌체, 베니스	
□ 프랑스	
. 파리	
IV. 연수소감	46
□ 총평(연수소감)	
□ 우수사례 및 접목방안	

# 공무 국외연수 결과보고서

## I. 연수개요

### ■ 연수목적

- 선진국의 복지시스템 등 우수정책사례 벤치마킹
- 도시기반시설(공원녹지, 가로정비, 교통 등) 및 선진농업시설 비교 시찰을 통한 우리군 접목사례 발굴
- 문화재 보존기술, 관광인프라 비교분석을 통한 관광지 활성화 전략 연구 등

### ■ 연수국

- 이탈리아, 프랑스

### ■ 연수기간

- 2017. 11. 16(목)~ 11. 23(목) < 6박 8일 >

### ■ 주요방문 지역

- 이탈리아 : 로마, 피렌체, 베니스
- 프랑스 : 파리

## ■ 연수자 명단 : 16명

○ 연수인원 : 총 16명(의원 10명, 직원 6명)

소 속		직(직위)	성 명	성별	비 고
계		16명			
합 천 군의회의원 (10)	합천군의회	의 장	김 성 만	남	
		부 의 장	허 중 홍	남	
		위 원 장	배 몽 희	남	
		위 원 장	석 만 진	남	
		위 원	이 용 균	남	
			신 명 기	남	
			조 삼 술	남	
			박 중 무	남	
			박 안 나	여	
			최 정 옥	여	
의 회 사무과 (6)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이 재 학	남	
		전문위원	정 순 재	남	
		전문위원	박 종 철	남	
		전문위원	주 현 용	남	
		의사계장	정 철 수	남	
		행정 7급	김 석 중	남	

## ■ 주요 연수일정

날짜	지 역	방문기관 및 일정	비 고
제1일 11월16일 (목)	인 천 이탈리아 (로 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천국제공항/ 로마 피우미치노 국제공항</li> </ul>	
제2일 11월17일 (금)	이탈리아 (로 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트라토레(IL TRATTORE) 유기농 농장</li> <li>• 포로로마노, 베네치아광장</li> <li>• 티부르 띠노 중앙정부 요양원 (CENTRO ANZIANI TIBURTINO)</li> </ul>	
제3일 11월18일 (토)	이탈리아 (로 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바티칸 박물관</li> <li>• 성베드로 대성당 · 광장</li> <li>• 콜로세움, 전차경기장</li> </ul>	
제4일 11월19일 (일)	이탈리아 (피 렌 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로마 → 피렌체 이동</li> <li>• 미켈란젤로 언덕, 두오모성당 및 종탑, 세뇨리아 광장 등</li> <li>• 피렌체 → 베니스 이동</li> </ul>	
제5일 11월20일 (월)	이탈리아 (베 니 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마르코 대성당 및 광장, 두칼레 궁전, 탄식의 다리, 곤돌라 체험 등</li> <li>• 피렌체 → 파리 이동</li> </ul>	
제6일 11월21일 (화)	프 랑 스 (파 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파리 하수도 박물관</li> <li>• 드라베이 레지던스 요양원 (RESIDENCE L' ABBAYE)</li> </ul>	
제7일 11월22일 (수)	프 랑 스 (파 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루브르 박물관, 에펠탑</li> <li>• 파리 출발</li> </ul>	
제8일 11월23일 (목)	인 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천국제공항 도착</li> </ul>	

## II. 연수국가 일반현황

### ■ 연수국 현황

#### 1. 이탈리아(Italia)



- 국 명 : 이탈리아 공화국(The Italian Republic)
- 위 치 : 유럽 중남부 지중해 연안 이탈리아 반도  
(동경 12° 50', 북위 42° 40')
- 행정구역 : 15개주(regione)와 5개 자치지역(regione autonoma)
- 건 국 일 : 1861년 3월 17일
- 면 적 : 301,340km<sup>2</sup>(한반도의 약 1.5배, 세계 72위) 농경지 37%
- 기 후 : 지중해성 기후

- 수 도 : 로마(Rome, 270만명/2016년)
- 인 구 : 6,214만(2017년 기준, 세계 23위)
- 주요도시 : 로마(270만명), 밀라노(130만명), 나폴리(97만), 토리노(90만), 피렌체(37만), 베니스(27만) ‘16년 기준
- 민 족 : 이탈리아인
- 공 용 어 : 이탈리아어
- 종 교 : 카톨릭교(80%), 기타(20%)
- 화폐단위 : 유로화(Euro, EUR), 지폐 최소유로 5€
- 시 차 : 8시간 늦음(서머타임 기간에는 7시간 늦음)
- 1인당 GDP : 31,619\$ (2017년 기준, 세계 27위)
- 외교 관계 : 1884년 6월 26일에 조선과 수호통상조약 체결  
1956년 11월 24일 대한민국과 수교
- 유럽 중남부에 있는 나라로, 정식명칭은 이탈리아공화국(Italian Republic)이다. 지중해 중앙부, 북서에서 남동으로 약 1200km에 걸쳐 장화 모양을 한 반도와 시칠리아·사르데냐 두 섬으로 구성된다. 북쪽은 알프스 산맥을 경계로, 프랑스·스위스·오스트리아와 접하며, 동쪽은 아드리아해(海), 서쪽은 티레니아해에 면한다. 이탈리아 반도는 발칸·이베리아 반도와 함께 남유럽의 3대 반도의 하나로서 동(東)지중해와 서(西)지중해 사이에 위치하기 때문에 자연·문화면에서 두 반도와는 달리 순수한 유럽형을 이루고 동시에 지중해 지역의 특색을 가장 잘 나타낸다.

5세기 서로마제국의 멸망 이후 국토가 분열되었다가 1861년 3월 17일 당시 오스트리아 영토였던 북동부와 교황이 지배하던 로마

를 제외하고 통일되어 이탈리아 왕국이 수립되었고 1870년 완전한 통일을 이루었다.

이탈리아는 1884년 6월 26일에 조선과 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하여 처음으로 국교를 맺었으며, 대한민국과는 1956년 11월 24일에 수교하였다. 1957년 9월 18일에 주이탈리아 한국대사관이 개설되었고, 1957년 12월 17일에 주한 이탈리아대사관이 개설되었다.

한국의 대(對)이탈리아의 교역 현황은 2010년 기준으로 72억 9,000만 달러이며, 이 가운데 수출이 35억 7,000만 달러(무선통신기기, 자동차, 철강관 등)이고, 수입은 37억 2,000만 달러(의류, 농약, 의약품 등)이다. 양국의 투자 현황은 2008년 누계 기준으로 한국의 대(對)이탈리아 투자가 106건, 4억 900만 달러이고, 이탈리아의 대(對)한국 투자가 148건, 1억 8,200만 달러이다. 교민 현황은 2011년 기준으로 4,141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출처] 네이버 백과사전

## 2. 프랑스(France)



- 국 명 : 프랑스 공화국(République Française)
- 위 치 : 유럽 중서부(동경 2° 00, 북위 46° 00)
- 행정구역 : 18개 레지옹(Regions, 5개 해외 속령 포함)과 각 주 아래 101개의 데파르트망(Departments)
- 건 국 일 : 1789년7월14일(프랑스 혁명 발발일)
- 면 적 : 643,801km<sup>2</sup>(한반도의 약 2.5배, 세계 43위) 농경지 57%
- 기 후 : 대부분 지역이 온대성 기후이나 남부 지방은 지중해성 기후
- 수 도 : 파리(Paris, 224만명/2017년)

- 인 구 : 6,711만(2017년 기준, 세계 21위)
- 주요도시 : 파리(224만명), 보르도(100만명), 마르세유(85만명), 리옹(49만명), 툴루즈(44만명), 몽펠리에(42만명) ‘17년 기준
- 민 족 : 켈트족, 게르만족, 노르만족, 라틴족, 바스크족 등
- 공 용 어 : 프랑스어
- 종 교 : 가톨릭(83-88%), 이슬람교(5-10%), 개신교(2%), 유대교(1%), 기타 (4%)
- 화폐단위 : 유로화(Euro, EUR), 지폐 최소유로 5€
- 시 차 : 8시간 늦음(서머타임 기간에는 7시간 늦음)
- 1인당 GDP : 39,673\$ (2017년 기준, 세계 23위)
- 외교 관계 : 1886년 6월 4일 조블수호통상조약 체결  
1990년 2월 15일 대한민국과 수교
- 유럽 대륙의 서부, 지중해와 대서양 사이에 위치하며, 유럽에서 3번째로 큰 나라이다. 987년 프랑크 왕국이 멸망하고 카페 왕조 창시로 최초의 국가가 형성되었다. 절대왕정과 제정, 공화정을 반복하다가 1871년 공화정부 수립 이후 오늘에 이른다.

정식명칭은 프랑스공화국(la République française)이다. 동쪽은 이탈리아·스위스·독일, 북동쪽은 룩셈부르크·벨기에와 접하고, 북서쪽은 영국해협을 건너 영국과 마주하며, 서쪽은 대서양, 남쪽은 지중해와 에스파냐로 이어진다. 육각형 모양의 본토 외에 해외 프랑스령으로는 마르티니크·과들루프·레위니옹·프랑스령(領) 기아나가 있고 그밖에 3개 해외공동체(마요트, 생피에르미클롱, 왈리에푸투나 제도), 1개 특별 공동체(뉴칼레도니아), 1개 해외국가(프랑스령

폴리네시아), 1개 해외영토(프랑스령 남부 지역)가 있다. 중앙아프리카·콩고·가봉·세네갈·차드 등과 프랑스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다.

행정구역은 5개의 해외 속령(Overseas Regions)을 포함한 주 단위의 18개 레지옹(Regions)과 각 주 아래 101개의 데파르트망(Departments)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나라와는 1886년에 한불수호조약(韓佛修好條約)과 통상장정(通商章程)·선후속약(善後續約) 등이 체결되었으며 본격적인 우호관계는 8·15광복 이후 1949년 2월 정식국교가 수립되고 양국의 상주공관이 설치되고 난 뒤부터 시작된다.

6·25전쟁 때에는 UN군의 일원으로서 전투병력을 파견한 혈맹이었으며, 외교적으로는 우방국으로서 경제·과학기술·문화협력 등의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2015년 기준 한국의 대프랑스 수출액은 25억 8100만 달러고 주종목은 선박, 승용차, 축전지, 자동차 부품 등이다. 수입액은 61억 5700만 달러고 주종목은 항공기, 화장품, 의약품, 펌프 등이다. 2014년 기준 재프랑스 한인인구는 1만 5000여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출처] 네이버 백과사전

### Ⅲ. 연수내용

#### 1. 로마

- 로마는 이탈리아의 수도이자 가장 큰 지방정부인 라치오 주의 주도로, 테베레 강 연안에 있다. 로마시의 행정구역 면적은 1,285km<sup>2</sup>로 서울시의 2배정도이고, 인구는 300여만명 정도이며 로마시 권역의 인구는 430여만명 정도이다.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로 유네스코에 등재된 문화유적의 17%(이탈리아 전체 70%)를 보유할 정도로 세계적으로 역사·문화유적이 가장 집중돼있는 도시로, 연간 2천8백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찾는 관광도시다. 또한 로마 북서부에는 법적으로는 엄연히 다른 나라이지만 역사·종교·문화적으로 이탈리아, 특히 로마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카톨릭 교회의 상징이자 중심인 바티칸 시국이 있다.
- “도시 전체가 거대한 야외 박물관인 로마, 땅만 파면 유물이 나오기 때문에 지하 주차장 하나 만들기도 어려운 도시” 고대 로마 유적의 1/3은 아직 지하에 묻혀 있고 그러다 보니 지하주차장은 상상도 할 수 없으며 로마 지하철 기존 2개 노선을 완성하는데 무려 28년이 걸렸으며 지하철 및 도로, 주차시설 등 교통관련 시설은 부족하고 노후되어 심각한 교통체증 및 주차난을 겪고 있다. 한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었는데 로마시의 고질적인 교통문제가 쉽게 해결 되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 한편 로마시내외의 주요 도로변 및 공원 등지에는 생 각지도 못한 소나무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다. 우리나라 소나무와는 품종이 약간 다른 우산소나무라고 하는데 로마의 상징이라고도 한다. 로마시내 대부분은 전선 지중화로 주요유적지 주변 경관 저해요인을 제거하고 입간판 및 돌출간판, 네온사인 등의

설치를 금지하고 조도를 제한하여 고대 로마유적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로마시내 곳곳에는 고대 로마시대 유적의 잔재가 많이 남아 있는데 새로운 건축물이나 개발 사업을 시행하다가도 유물일 발견되면 그 모습 그대로 보존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 로마시의 가장 큰 고민인 쓰레기 대책과 심각한 교통난.

로마의 쓰레기 문제는 매립지 부족과 공무원·장비 부족 문제가 얽히면서 심각한 수준이다. 로마시내 곳곳에는 분리수거를 위해 쓰레기통이 있다. 그러나 쓰레기통 내부를 보면 선진국의 의식 수준에 어울리지 않게 분리수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으며 주요관광지 등에는 담배꽂초나 쓰레기 등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였다.

그리고 로마시는 문화재가 많고 도로가 좁아 교통난이 심각하여 경차(특히 2인용)와 오토바이를 많이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심각한 교통난에도 불구하고 로마 연수기간 중 주요 교차로나 횡단 보도를 건널 때 한 번도 빠짐없이 일행이(보행자) 우선하여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배려하는 모습에서 이탈리아인의 사람을 존중하는 높은 교통의식 수준을 볼 수 있었으며 이는 분명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일 것이다.

○ 고대 로마시내에 포장되어 지금도 일부 사용되고 있으며 현재도 시공되고 있는 돌로 된 포장도로, 건물이며 쓰레기통·상점 서터 등 어디 한곳 빠지지 않고 낙서(그래피티)가 되어 있으며 고대의 유적과 유물의 보호를 위해 우리나라의 주요도시와는 비교할 수 없는 길가에 조그맣게 설치된 주유소·상가들, 테러에 대비해 배치된 군인들,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며 그마저도 쉽게 눈에 띄지 않는 공중화장실, 연수기간내 쉽없이 강조하는 소매치기 등은 우리와는 다른 쉽게 이해하기 힘든 부분인 듯하다.



👁️ 로마시내 전경



👁️ 로마시내 전경(2인승 경차, 낙서, 돌 포장 도로)



👁️ 도로변에 있는 조그마한 주유소



👁️ 분리수거 쓰레기통

## ◆ 로마 트라토레(IL TRATTORE) 유기농 농장

○ 방문일 : 2017. 11. 17 (금)

○ 로마근교에 위치하고 있는 트라토레 유기농 농장.

처음 농장을 방문하였을 때에는 농장의 규모나 시설수준에 실망스러움을 감출 수 없었다. 계절이 겨울이라 주요 작물 수확시기가 지났으며 유기농 농장의 특성상 자연친화적 관리의 이유가 있더라도 토지관리나 작물의 관리상태 등 농장의 전반적인 관리 상태는 사실 형편없었다. 그러나 이 농장이 영리 목적이 아닌 지적장애인의 치료를 위해 운영하는 시설이라는 설명에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농장에서 사육하고 있는 동물마저도 움베르트 병원의 소유라는 사실은 놀랍기만 하였다. 농약과 화학

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유기농으로 경작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유기농법과 큰 차이가 없었으며 대부분의 농작업을 사람의 노동력으로 해결하고 있었다. 로마시에서 2~30분정도의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시유지로서 면적은 5ha정도이며 지적장애인의 치료 및 자활을 돕기 위한 복지를 위해 적은 비용으로 장기 임대를 해주고 있었다. 농장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로마시 근교에 이와 유사한 농장이 100여개에 이른다고 하였다.

○ 방문 질의 및 답변내용

**Q** 유기농 농장의 경제성에 대해?

**A** 현재 운영하고 있는 유기농 농장은 영리 목적이 아니며 지적장애인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복지차원에서 운영하고 있음.

**Q** 정부나 시에서 이 농장에 지원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A** 정부에서의 지원은 없으며 로마시에서 싼 가격에 장기로 임대해 주고 있음.

**Q** 종사원 현황 및 매출액 현황은?

**A** 종사원은 23명으로 23명 모두 지적장애가 있는 사람들임. 매출액은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으나 일평균 350유로(45만원)정도 되는 것 같음. 종사원 모두는 출·퇴근을 하고 있으며 점심 식사제공 및 교통비 정도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음.

**Q** 우리나라의 경우 지적장애인의 노동력 착취가 사회문제가 되었던 경우가 있었는데 종사원 모두가 지적장애인라고 하였는데 노동력 착취라는 비판적 의견은 없었는지?

**A** 영리를 추구하는 농장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력을 착취할 만큼의 노동이 필요하지 않으며 고용원에게 적은 금액이지만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종사원의 만족도가 매우 높아 그런 문제는 발생한 적이 없음. 가족들 또한 의료기관이나 치료시설에 비해 의료비 부담이 없고 치료에 도움을 받고 있으며 어느 정도 자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단히 만족하고 있음. 또한 수시로 농장을 방

문하여 농장운영 상황을 볼 수 있으며 농장 내 판매장에서 구매도 하고 있으며 지적장애인의 복지에 관련한 사회관계망이 잘 형성되어 그런 문제는 발생할 수 없음.

**Q** 생산된 농산물은 어떻게 판매하고 있는지?

**A** 농장내에 판매장이 있으며 인근 마을 주민 및 종사원의 친지·가족들에게 판매하고 있음.

**Q** 농장운영 전반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A**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우리농장을 견학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많은 방문자들이 왔으나 합천군의회 의원들처럼 진정성 있는 자세로 임해 주신 분들은 없었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농장은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는 기본이념을 바탕으로 자연과 벗삼아 땀 흘리면서 생명을 가꾸는 과정에서 자신을 치료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을 최대의 가치로 여기고 있음.



☞ 트라토레 유기농 농장 전경



☞ 움베르트 병원 소유 동물



☞ 농장 내 판매장



☞ 농장 내 판매장

☞ 전 국민의 60%가 협동조합원 이라는 이탈리아. 이탈리아의 사회 협동조합은 복지 서비스에 주력하고 있으며 사회적 농업 협동조합도 그중의 하나이다. 상기와 같이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기반을 둔 다양한 사회적 서비스를 취약 계층에 제공하는 농업을 **사회적 농업**이 라고 한다. 이탈리아의 사회적 농업은 플로렌스 지방에서 1979년 나타났고 현재는 약 2천 곳의 농장이 전국에 분포 하며 이 농장들 대부분(70% 가량)이 유기농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한다. 사회적 농업은 농장에서 하는 농업활동 외에도 건강, 재활, 사회통합, 교육, 고용 등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농업을 말하고 공공의 건강, 교육과 훈련, 사회통합과 포용, 지역개발의 이익 창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 지적장애를 안고 치료가 필요한 사람에 대해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하며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치료해 나갈 수 있는 사회 관계망이 구축되어 있으며(이와 비슷한 유기농 농장이 로마 근교에만 100여개소가 있다고 함) 일반 농산물 보다 비싼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자립을 돕고 나아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위해 기꺼이 구매해 줄 수 있는, 인간의 존엄성을 가장 중요시 여겼던 르네상스의 정신을 계승한 이탈리아인의 높은 의식 수준에 감명과 부러움을 느낌. 현금이나 현물 등 직접지원에서 끝나고 병원이나 요양시설 등에 사회로부터 격리시켜 인간의 존엄성 여부조차 의심스러운 우리의 현실과 비교해 볼 때 우리가 나아가야 할 정책 방향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 ◆ 베네치아광장, 포로로마노

○ 방문일 : 2017. 11. 17 (금)

○ 로마의 중심부에 위치해 '로마의 배꼽'이라 불리는 광장이다. 광장 한쪽에는 2세기 초의 유적으로 원기둥 표면에 다키아 원정의 전투 장면을 사실적으로 조각한 나선형의 부조가 남아 있어 감탄을 자아내는 트라야누스 원주(Colonna Traiana)가 서 있다. 광

장의 남쪽으로 내려가면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2세 기념관, 캄파  
 툴리오 광장, 로마시청을 지나 로마 제국의 영광이 남아 있는  
 유적지 포로 로마노로 이어진다.

- 포로 로마노(Foro Romano)란 “로마인의 광장“이라는 뜻이다.  
 흙속에 묻혀 몇세기를 보내다 19세기가 되어서야 발굴이 되기  
 시작했는데, 이곳의 유적 하나 하나(고대 로마인들이 시민생활의  
 중심지로 생각하던 신전과 공회당 등 공공 기구와 함께 일상에  
 필요한 시설) 마다 새겨진 역사적 의미는 실로 엄청나다고 할  
 수 있겠다.



👉 베네치아 광장



👉 베네치아 광장(트라야누스 원주)



👉 캄파톨리오 언덕(로마시청)



👉 포로로마노

- 👉 포로 로마노를 보고 있노라면 역사란 시간 속에 존재했다가 묻히고 또 다시  
 금 살아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겹겹이 쌓인 유물들은 어느 시기의 눈

으로 보느냐에 따라 그 역사적 가치가 달라진다. 진실을 밝힌다고 한 층을 걷어내 보니 그 밑에 다른 진실이 숨어 있고, 또 한 층을 벗겨보니 또 다른 진실이 있다. 기원전 8세기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포로로마노의 모습이 먼 훗날에는 또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가 생각해 본다.

- 또한 포로로마노 뿐만 아니라 로마(이탈리아)의 어느 곳을 가더라도 방대한 유적, 유물들에게 압도당하는 느낌이 든다. 그러기에 부러움과 심지어는 질투심 같은 기분도 느껴진다. 조상들의 은혜로 먹고 산다고 욕하는 것도 어느 면에선 이 질투심의 발로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탈리아인들은 조상의 은혜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조상의 빛난 얼을 영화롭게 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작은 돌맹이 하나라도 소중히 여기는 로마의 사람들. 포로 로마노를 걸으며 우리도 로마인들의 이런 정신을 본받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다.
- 우리군도 현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가야사 연구·복원 사업이 군정의 주요 현안사항으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군은 가야사 관련 지자체들 중에서도 삼가 고분군 등 미발굴 유적이 산재하고 있는 가야사의 중심에 있는 곳이다. 가야사의 경우 빈약한 역사기록으로 많은 부분이 훼손·왜곡되어 있으며 그러한 한계로 인해 고분 등 가야유적에 대한 발굴·조사 등 고고학적 접근이 필수적이다. 우리군에 산재해 있는 가야 유적의 발굴·연구·보존에 최선을 다하여 가야 유적의 역사적 가치를 인정하고 소중히 여겨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판단하는 역사적 가치와 미래 세대를 살아갈 후손들에게 그 시대에 필요한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 티부르 띠노 중앙정부 요양원(CENTRO ANZIANI TIBURTINO)

- 방문일 : 2017. 11. 17 (금)
- 로마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티부르 띠노 중앙정부 요양원.

우리나라와 비교한다면 경로당이나 노인회관과 비슷한 시설이다. 요양원 주변의 노인층이 주요 이용객들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경우 우리나라 요양원의 주간보호프로그램처럼 방문하여 시설 이용이 불편함이 없도록 운영하고 있었다. 시설내에는 당구대(장), 탁구대(장), 다목적홀, 카페 시설 등이 있어 실내 스포츠나 카드게임 등을 즐기고 있었으며 여가활용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었다. 우리군 경로당의 경우 이용객이 대부분 할머니들인 비해 우리가 방문하였을 때에는 티부르 요양원 이용객 중 80%이상이 남자였다.



☞ 요양원내 다목적홀

☞ 요양원내 카페

☞ 우리나라의 경로당이나 노인회관의 경우 단순히 쉼터로서의 기능밖에 하지 못하고 있으며 노인들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도 개별기관에서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다. 즐기기 보다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 노인인구의 여가활용 및 복지향상을 위해 노인들만을 위한 노인복지회관 신축과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 다각적인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

### ◆ 바티칸 미술관, 성베드로 대성당 · 광장

○ 방문일 : 2017. 11. 18 (토)

○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로 꼽히는 바티칸 시국, 인구가 1000여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조그만 나라이지만 전세계 카톨릭교의 중심지로 동시에 르네상스 예술혼이 살아 있는 곳으로 1984년 유네스코에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하였다. 교황궁 내에 있는 바티칸 미술관과 바티칸 중앙 성 베드로의 묘지 위에 세워진 성 베드로 대성당은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종교 건축물이다. 성 베드로 성당은 라파엘로·미켈란젤로·베르니니·마데르나·브라만테를 비롯한 많은 예술가들의 천재성이 결합된 산물이기도 하다.

- 바티칸 미술관은 미켈란젤로의 대작 <천지창조>와 <최후의 심판>이 있는 시스티나 성당을 필두로, 바티칸시국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궁전, 미술관, 박물관을 전부 지칭한다. 역대 로마 교황이 수집한 방대한 미술품·고문서·자료를 수장(收藏)하고, 또 미켈란젤로,라파엘로 등의 대화가에 의한 내부의 벽화·장식으로 유명하다. 약 1,400실에 이집트, 그리스, 아시리아 등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는 조각품, 명화, 유물들이 소장되어 있다.



☞ 바티칸 미술관



☞ 바티칸 미술관

- 성 베드로 대성당 또는 성 베드로 대성전·베드로 대성전·바티칸 대성당·바티칸 대성전 이라고도 하는 성 베드로 대성당은 로마 가톨릭 교회의 종교 활동의 중핵으로 그리스도 교회당 중

에서는 세계최대의 규모를 가진다. 이 건축물의 가장 중심인 쿠폴라(돔)는 미켈란젤로에 의해 설계되었으며 그의 제자인 자코모 델라 포르타에 의해 마무리되었다. 역대 교황 묘소가 있으며 교황청사, 베르베텔 정원 등과 함께 바티칸시국을 형성한다. 324년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 1세에 의해서 창건되어 르네상스, 바로크시대에 지금의 대성당이 재건되었다.



☞ 성 베드로 대성당

- 성당의 앞에는 바로크양식의 거장인 베르니니(Giovanni)가 설계해 1667년 완공된 성 베드로 광장이 있다. 성 베드로 광장은 30만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으며 수많은 순례자들이 주일 정오에 교황의 축복을 받으려고 이곳에 모인다.



☞ 성 베드로 광장

☞ 바티칸 박물관 및 성베드로 대성당을 관람하기 위해서는 긴 시간을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한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예약제(놀이공원의 프리패스와 비슷한)를 시행하고 있었는데 예약을 하고 관람하기 위해서는 추가 비용을 지불하여야 하며, 단체 관람객의 경우 문화재 보호 등을 위해 박물관에서 지정하는 별도의 가이드의 안내에 따라 관람하여야 한다. 대장경세계 문화축전 등 많은 사람들이 집중되는 행사나 축제시 예약제 시행 및 관람 인원 제한 등을 통해 관람객들에게 좀 더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문화재나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 콜로세움, 콘스탄티누스 개선문, 전차경기장(키르쿠스 막시무스)

○ 방문일 : 2017. 11. 18 (토)

○ 콜로세움은 AD 72년에 건설을 시작하여 80년에 완성된 대형 원형투기장 겸 극장이다. 온천 침전물 대리석으로 건축된 이 커다란 원형 건물은 처음에는 플라비아누스 원형 극장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졌으며, 이곳에서 열리는 검투사 경기를 보러 찾아드는 5만 명 가량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었다. 고대 로마 유적지 중 가장 규모가 큰 것으로 최대지름 188m, 최소지름 156m, 둘레 527m, 높이 57m의 4층으로 된 타원형 건물이다. 콜로세움은 거대한다는 뜻으로 근처에 거대한 네로상이 있어서 이름 지어졌다는 전설이 있다. 중세에 콜로세움은 교회로 쓰였으며, 그 후에는 요새로 이용되었다. 시간이 흐르며 이 건물은 손상을 입어 지진의 피해를 입거나 강도가 돌을 약탈해 가고, 자동차가 늘어나면서 생긴 현대의 공해에 시달리게 되었으나, 콜로세움은 여전히 잔혹한 여흥을 즐기는 인간의 취향을 반영하는 기념물로 남아 있다.

- 콘스탄티누스 개선문은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312년 밀비오 다리 전투에서 막센티우스에게 승리한 것을 기념하고자 세워졌으며,



☞ 콜로세움과 개선문

팔라티노 언덕과 콜로세움의 중간, 당시 승리의 환호성을 올리던 비아 트리움팔리스에 자리 잡고 있다. 높이 20미터, 너비 25미터, 폭은 7미터에 달하며 모두 세 개의 아치가 있는데 중앙 아치는 높이가 12미터, 양옆의 아치는 7미터인 개선문은 영원히 남을 기념비로 세워지며, 정치적 파워의 과시로 보이기도 했다. 개선문 건축의 전통은

그 후 수세기를 누리며 프랑스의 황제 나폴레옹 1세가 세운 파리의 개선문으로까지 이어진다.

- 키르쿠스 막시무스는 이탈리아 팔라티노 언덕과 아벤티노 언덕

사이에 움푹 파인 기원전 600년경에 목재로 만들어진 거대한 타원형 광장으로 고대 로마 제국에서 가장 큰 전차 경기장이었다. 원래 로마의 에트루리아 왕들이 경기와 오락을 위해 지었으며 BC 50년 경에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약 2만 7



☞ 전차경기장

천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재건했다. 그 후 더욱 확장 되어 25만 명까지 수용할 수 있으며 549년을 끝으로 마지막 전차경기가 벌어졌다. 키르쿠스 막시무스는 라틴어로 '대형 경기장(또는 광장)'을 의미한다. 현재는 이전 흔적이 거의 남아 있지 않으며 경기장 자리에 조성된 공원에서 콘서트나 대형 집회 같은 행사가 열린다.

### ◆ 판테온, 스페인광장, 트레비분수

○ 방문일 : 2017. 11. 18 (토)

○ 완벽한 형태로 남아 있는 고대 로마의 유적 판테온. 2,000년을 이어 간 로마제국의 현존하는 건축물 중 가장 보존이 잘되었는데 특히 이 건물의 청동문과 돔은 손상되지 않아 원형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판테온은 그리스어로 '모든 신들을 위한 신전'이라는 뜻이다. 판테온 내부에 들어서면 당시의 탁월한 건축 수준을 알 수 있다. 건물 내부의 둥근 천장은 높이와 직경이 43.40m(성 베드로 대성당 돔보다 크다)로 완벽한 비율의 일치를 이뤄서, 돔은

정확하게 건물 내부 높이의 반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 판테온

그 중간 지점에서 바닥쪽으로 원을 그려 보면 정확한 구의 모양을 상상할 수 있는데 이렇듯 조화와 균형이 있는 건축미가 돋보인다. 1958년 파리 CNIT가 세워질 때까지 세계에서 가장 큰 콘크리트 돔이었다. 내부에 기둥은 전혀 없고 무거운 돔의 중량을 지탱하고 있는 벽이

유일한데, 이 벽은 아치 공법에 의해 만들어져 두터운 벽제 안에 7개의 부수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 스페인 광장은 로마 시내에서 가장 활기차고 화려한 지역으로 연중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17세기에 이곳에 스페인



☞ 스페인계단과 바르카치아 분수

대사관이 있었던 데에서 광장의 이름이 유래되었다. 특히 영화 <로마의 휴일>에서 배경으로 나온 스페인 계단 주변이 유명하다. 1722년에 건립된 137개의 우아한 스페인 계단을 올라가면 언덕 위에 트리니타 데이 몬티 교회(Chiesa della Trinita dei Monti)가 있다.

계단 바로 앞에는 이탈리아 바로크를 대표하는 조각가이자 건축가인 베르니니와 그의 아버지가 제작한 테베레 강에서 와인을 운반하던 낡은 배(바르카차)를 분떠 만든 바르카치아 분수(Fontana della Barcaccia : 낡은 배의 분수)가 있다.

- 높이 26m, 너비 20m로 바로크 양식의 최고 걸작으로 꼽히는 트레비 분수. 분수의 물은 그냥 수도관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로마에서 멀리 떨어진 산악지로부터 만들어진 지 2000년이 넘는 수로를 통해 공급된다. 이 수로는 BC19년 아우구스투스의 오른 팔이었으며 판테온을 건설한 아그리파에 의해 설치되었다. 고대 로마인들은 1km에 25cm의 아슬아슬한 경사를 유지하면서 20km가 넘는 지하수로를 건설했다는 것이다. 고대 로마인들이 측량기술과 시공기술을 엿볼 수 있다. 플리니오라는 역사가는 일찍이 고대세계의 경이 가운데 가장 으뜸으로 로마의 수도관을 꼽은 바 있다. 제국시대의 로마에는 기념비적인 멋진 상수도 시설이 열네 개가 있었다. 그런데 제국이 멸망하고 침략과 약탈이 진행되는 동안 수도관들이 모조리 파괴되었다. 신속한 항복을 유도하기 위함이었다. 중세기 로마인들은 물이 부족하여 고난을 많이 겪었는데 르네상스시대에 이르러서야 교황들이 상수도를 보수하고, 또 새로 건설하였다. 이를 기념하는 의미로 로마인들이 멋진 분수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서 트레비 분수가 가장 인기 있는 최고의 걸작이란 평가를 받는다.



☞ 트레비분수

☞ 2000여년 전부터 콘크리트를 사용했다는 사실도 놀랍지만 철근이나 다른 부자재의 도움 없이도 현재까지 버텨온 건축기술은 경이롭기까지 하다. 지은지 30~40년이면 재건축을 하는 우리의 현실과 비추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우리군에서 조성하고 있는 대야주 희망정원도 ‘분수와 광장 그리고 만남이 잘 어우러진 트레비 분수’가 부럽지 않을 군민들의 만남과 소통이 어우러지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 ◆ 올림피크 스타디움

○ 방문일 : 2017. 11. 18 (토)

○ 로마에서 가장 큰 스포츠 시설이며 포로 이탈리아 스포츠 단지 내에 있다. 1928년 무솔리니 정권의 건설 프로젝트 중 하나로 공사를 시작하여 1937년 치프레시 스타디움(Stadio dei Cipressi)이라는 이름으로 개장하였다. 이후 지금까지 세 번의 개축을 했으며 특히 2008년의 대대적인 개축과 보수로 인해 완전히 모습이 달라졌고 첨단 시설을 갖추게 되었다.

로마를 연고지로 하는 프로축구클럽 SS 라치오와 AS 로마의 홈구장이다. 바닥이 천연잔디로 되어 있고 크기가 105×68m이며 수용인원은 7만 2698명이다. 주로 축구 경기가 열리며 그밖에 다양한 경기와 콘서트, 경음악, 각종 행사와 집회가 열린다.



☞ 포로 이탈리아 스포츠 단지



☞ 올림피크 스타디움

- 이탈리아인에게 축구란 무엇일까?

축구는 이탈리아의 국기이기도 하며 브라질 사람들만큼이나 축구를 사랑하는 민족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탈리아는 지형상 우리와 같은 반도의 나라지만, 근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도시국가가 균용할거 해온 복잡한 역사를 갖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이탈리

아 나아가 유럽축구는 심한 지역감정이라는 공통점을 안고 있다. 이탈리아 세리에A 클럽팀 연고와 옛날 도시국가의 판도를 비교해 보면 거의 정확히 맞아 떨어진다. 그래서 이들의 축구장이 여느 나라보다 더 강렬한 지역감정이나 민족주의로 끓어오르는 이유가 아닌가 한다.

☞ 비록 포로 이탈리아 스포츠 단지과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우리군에도 전국 최고 수준의 스포츠 시설이 있어 전국규모 축구대회 유치 및 동계훈련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주민들이나 관심이나 호응은 많이 부족한 것 같다. 시설의 활용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적극적인 관심 표명으로 앞으로도 계속 우리군을 찾을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2. 피렌체

○ 에트루리아인들의 옛 거주지에 건설된 피렌체는 15세기, 16세기에 메디치 가문이 다스리며 아름다운 문화와 경제적 풍요를 꽃피운 르네상스 시대를 상징하는 도시이다.

미켈란젤로 광장에서 바라보는 아름다운 피렌체의 전경은 널리



알려져 있으며 1982년 유네스코 도시역사지구로 선정된 피렌체 역사 지구내에는 13세기에 지어진 산타 마리아 델 피오레 대성당을 비롯하여 산타크로체 성당·우피치 궁전(Uffizi)·피티 궁전 등의 뛰어난 건축물과 조토·필리포 브루넬레스키·산드로 보티첼리·미켈란젤로

☞ 미켈란젤로광장에서 본 피렌체 전경  
부오나로티·레오나르도 다빈치와 같은 대가의 예술 작품들이 남아 있다. 피렌체에는 600년에 걸쳐 일어난 탁월한 예술 업적이 도시 곳곳에 펼쳐져 있다.

## ◆ 피렌체 역사지구(두오모성당, 시뇨리아 광장)

○ 방문일 : 2017. 11. 18 (토)

○ 피렌체의 역사지구는 그 자체가 독보적인 예술 작품이고 완벽한 걸작이자, 6세기 이상 지속된 창작의 결실로 예술과 건축 작품의 보고(寶庫)라 할 만하다. 이 도시의 정신적인 중심지인 산타 마리아 델 피오레 대성당, 대성당 광장의 한쪽에는 조토의 종탑이 있고, 앞쪽에는 기베르티의 작품인 ‘천국의 문(Gates of Paradise)’이 있는 산 조반니 세례당이 있으며, 베키오 궁전과 우피치 궁전에서 내려다보이는 시뇨리아 광장, 산 로렌초 성당, 산타 마리아 노벨라 성당, 산타 크로체 성당, 파치 예배당과 프라 안젤리코, 산토 스피리토, 산미니아토의 그림을 소장하고 있는 산마르코 수도원 등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예술 작품이 집중되어 있다.

-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피렌체에서도



👁️ 두오모

두오모는 대표적인 상징물이다. 정식 명칭은 산타 마리아 델 피오레 대성당으로 ‘꽃의 성모 교회’를 뜻한다. 1296년 공사를 시작하여 166년이란 긴 세월을 걸쳐 1462년에 완성되었다. 피렌체의 건축물 가운데 가장 높고 웅장하며, 세계에서 4번째로 큰 성당이다.

두오모는 로마네스크, 고딕 양식과 고대 로마의 건축 양식이 혼합된 르네상스 양식을 대표하는 건축물이다. 로마의 건축 양식은 대성당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8각형 돔에서 볼 수 있는데

로마에 있는 판테온을 모방한 것으로 바티칸 시국에 있는 성 베드로 대성당 돔과 쌍벽을 이루는 아름다운 돔으로 알려져 있다. 피렌체 두오모를 르네상스 양식을 대표하는 건축물로 보는 이유는 실내에 르네상스의 여러 예술품들이 있기 때문이다.

중세 시대의 작품들은 하나같이 종교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반면, 피렌체 두오모의 작품들은 그리스와 로마 문화의 영향을 받아 인체 표현이 아름답고 생명력이 넘친다. 르네상스의 특징인 그리스·로마 문화의 부활과, 예술의 중심이 신이 아닌 인간에 있음을 잘 보여 주는 것이다.

- 시뇨리아 광장은 수세기 동안 피렌체의 정치·사회적 중심지였으며, 현재는 카페테라스가 있는 휴게장소이다. 베키오 궁전과 우피치 미술관이 접해 있는 광장으로 13~14세기에 조성되었으며,

중세 이후 지금까지 시청사로 쓰이고 있는 베키오 궁전과 더불어 역사 깊은 정치와 상업의 중심지 역할을 했다. 광장에는 피렌체를 일으킨 코지모 데 메디치의 동상이 있고, 유명한 미켈란젤로의 동상 《다비드》의 모조품과 메두사의 목을 벤 페르세우스의 청동상인 《첼리니의 페르세우스》, 잠볼로냐의 《사빈 여인의 강간》 등 르네상스 시대의 걸작 모조품들이 있다. 고딕 양식의 건물인 베키오 궁전은 높이 94m의 종탑이 솟아 있으며, 베키오 궁전 옆에는 피렌체를 대표하는 미술관인 우피치 미술관이 있다.



☞ 시뇨리아 광장



☞ 시뇨리아 광장의 베키오 궁전    ☞ 시뇨리아광장(피렌체 전통의상)

☞ 외국인 관광세라고 할 수 있는 도시 진입세.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등의 나라는 외국인 관광객으로 인한 자국민 피해와 문화재 파손에 따른 유지보수 및 복원 비용에 증당하기 위해 도시 진입세를 받는 도시가 많다. 또한 피렌체 내 역사지구는 차량에 의한 문화유적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차량출입 제한 장치를 설치하여 허가차량이 아니면 역사지구내에는 진입할 수가 없다. 르네상스의 발생지이자 미켈란젤로, 다빈치, 단테 등의 거장을 배출한 유서 깊은 도시 프렌체. 외국인을 통해 별다른 노력 없이 세수만 늘린다고 평가하기에 앞서 역사와 문화를 지키고자 하는 그들의 노력을 배우고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은 도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3. 베네치아

○ 이탈리아 동북부의 아드리아 해(海)에 임한 도시 베네트 지방의 주도. 베네치아는 육지에서 4km 떨어진 118개의 밀집한 작은 섬과 150개의 운하, 378개의 다리로 연결되었고, 그 한가운데를 흐르는 대대운하를 중심으로 특수한 형태의 항만도시로 발전하였다. 중세기부터 지중해와



☞ 베네치아전경

접촉할 기회가 많고 비잔틴 등 동방기원의 각종 문화가 풍부히 수입되었다. 또 프랑스, 독일, 플랑드르의 대도시와 교역을 통하여 북방 후기고딕 예술의 영향도 받아 독자적인 섬세하고 장식성이 풍부한 건축 양식이 발전하였다. 그 상업상의 번영을 배경으로 15~16세기에는 베네치아파가 형성되어 동시대의 피렌체, 로마에 뒤지지 않는 고도의 르네상스 양식을 확립하여 유희의 발전에 결정적 영향을 주었다. 공예에서는 중세 이래 유리제조가 성하였으며 레이스도 유명하였다. 근년 지반침하가 현저하여 구제가 요구되고 있다.

### ◆ 산마르코 대성당 · 광장, 곤돌라 체험

○ 방문일 : 2017. 11. 18 (토)

○ 산 마르코 대성당은 829년 이집트에서 가져온 성 마르코의 유해를 모시기 위해 창건된 바실리카 성당을 대신해서 1063-1073년에 지금의 성당이 건립되었으며 이탈리아의 베네치아를 대표하는 비잔틴과 서방 양식의 혼합 구조로 건축되었다. 황금의 교회로 이름 붙여진 성당으로 르네상스와 17세기에 변형이 가해졌으며 다양한 양식으로 재건되었다. 특히 대리석과 모자이크의 아름다운 장식이 유명하다.



☞ 산마르코대성당·광장

- 대성당 앞에 있는 산 마르코 광장은 1987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베네치아의 정치·종교·문화의 중심지이다. 광장에는 99m의 종루와 베네치아의 상징인 사자상이 서 있다. 광장 주변의 건축물들은 모두 베네치아의 과거와 현재를 함께해 온 역사적인 건물들로 광장 동쪽으로 성인 산 마르코의 유골을

모신 산 마르코 대성당과 현재 미술관으로 사용되는 두칼레 궁전이 있다. 두칼레 궁전 맞은편에는 16세기 건물로 90만권의 장서를 소장하고 있는 베네치아에서 가장 중요한 마르차나 도서관이 있으며 광장 남쪽으로 이어지는 프로쿠라티에 누오베 2~3층에는 코레르 박물관이 있다. 프로쿠라티에 누오베에 있는 1720년에 개업한 카페 플로리안은 전쟁 중에도 영업을 멈추지 않았다는 역사 깊은 장소로 바이런, 괴테, 바그너 등이 자주 들렀던 곳으로 유명하다.

- 베네치아에는 바닷물이 들어차 있는 수로가 골목길처럼 존재한다. 베네치아를 찾는 관광객은 수로를 따라 여행할 때 곤돌라를 이용하는데, 곤돌라는 이탈리아 말로 '흔들리다'라는 뜻이다.



원래 장례용으로 사용되다 중요한 교통수단이 된 베네치아의 명물이다. 슬림한 선체와 평평한 바닥으로 좁고 얇은 운하를 지나기에 적당하다. 뱃머리가 아주 약간 왼쪽으로 꺾여 있는데, 이것은

☞ 베네치아 곤돌라 체험

은 노 젓는 힘을 줄이고 곤

돌라가 뱅뱅 도는 것을 방지해준다. 오늘날 모터보트가 보급되면서 곤돌라의 숫자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또한 베네치아는 물의 도시답게 여느 곳과는 좀 다른 교통 체계를 갖추고 있다. 베네치아에서 운행되는 버스, 택시, 자가용, 관광용 택시, 트럭 등이 모두 자동차가 아니라 배이다. 시민들의 발 역할을 하는 버스는 길이가 10~20m에 달하는 선박으로 50~200여 명이 탈 수 있는데 요금이 저렴하여 시민들은 물론이고 베네치아를 찾는 관광객들도 대부분 버스를 이용한다. 택시는 5~10명이 타고 다닐

수 있는 보트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원하는 곳까지 빠르게 갈 수 있는 만큼 요금은 비싸다. 곤돌라는 관광용 택시에 해당되는 배로 여행 코스와 시간에 따라 요금이 달라지며 트럭 역할을 하는 화물선은 물건을 운반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 **우리군의 항강변을 이용한 카누 체험을 활성화하여 합천을 대표하는 관광상품으로 육성하려면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 시신운반용으로 사용되던 곤돌라를 관광상품으로 전환한 베니스인의 사고의 전환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다.**

## 4. 파 리

- 프랑스 수도이며 특별시. 파리분지 중앙, 센 강 중류 연안에 위치. 프랑스의 정치·경제·교통·학술·문화의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세계의 문화 중심지로, ‘꽃의 도시’라고 불리며 프랑스 사람들은 스스로 ‘빛의 도시’라고 부른다. 기원전 52년 센 강의 섬에 로마인이 식민도시로 건설했으며 987년 수도가 됐고 나폴레옹 시대에 도시계획이 이루어져 근대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파리는 그 자체가 하나의 박물관으로 역사적 건조물이 풍부하다. 시테 섬에 세워진 노트르담 대성당, 루브르 궁전은 파리의 상징적 존재이며, 에펠탑, 사크레쾨르 대성당은 근대 파리의 상징적 건축물이다. 그 밖에 수많은 박물관, 미술관, 퓌상부르 궁전, 엘리제궁(대통령 관저), 에펠탑, 콩코르드 광장 등 숏한 명소가 있다. 세계의 다른 나라 수도와 비교하여 몹시 좁은 편에 속하며 둘레 36km의 환상도로(옛 성벽 자취)에 둘러싸인 부분이 1860년 이래의 파리 시가지이다. 그러나 프랑스 전체의 0.25%에 이르는 면적에 전인구의 약 5분의 1이 집중해 있는 파리 대도시권은 해마다 인구가 늘어나고 있으며 재정지출이나 상업거래량도 전국의 반 이상을 차지한다. ‘수도 집중현상’은 프랑스의 특징 중 하나이다.



👁 에펠탑에서 바라본 파리 전경      👁 에펠탑에서 바라본 파리 전경

### ◆ 파리 하수구박물관 (MUSEE EGOUS ED PARIR)

- 방문일 : 2017. 11. 18 (토)
- 고대부터 오늘날까지 파리의 하수 처리 시설 역사 등을 살필 수 있는 박물관으로 실제 하수도의 한 구간을 이용하여 박물관으로 만든 것이다. 470m 가량의 지하터널을 따라 내려가는 동안 상수관, 우수관 및 지상에서는 보기 드문 파리의 전기 시설 및 전화 설비 그리고 가스 배관 시설 등을 직접 볼 수 있다. 또한 고대부터 오늘날까지 파리 하수 처리 시설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다양한 시청각 자료를 구비하고 있다. 마네킹 및 모형 시설을 이용하여 하수 처리 시설을 관리 작업을 이해하기 쉽게 재현해 놓기도 했다. 파리 하수구의 역사와 구조 뿐 아니라 하수 처리와 안전장치 시설, 하수구에서의 위급상황 대처법, 청소법 혹은 맨홀에 귀중품을 빠뜨렸을 때 찾는 방법 등 실용적이고 재미있는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전 세계 어느 도시보다도 하수구 시설이 광범위하게 발달되어 있는 파리의 지하 모습을 생생하게 경험 할 수 있다.
- 파리의 하수도는 총연장이 2,400km에 이르며 이중 1,600km는

작업인부 등 사람이 직접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며 1일 하수배출량 130만<sup>m</sup>, 26,000여개의 맨홀, 13,000여개의 접속점, 18,000여개의 도로 우수 유입구, 99,000여개의 건물 배수구가 설치되어 있으며 약 1,000여명의 인력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 방문 질의 및 답변내용

**Q** 파리 시내 하수도망 언제 건설 되었는지?

**A** 현재의 파리 하수도는 1850년 나폴레옹 3세 때 후스만 남작이 계획하고, 토목공학자인 위겐 벨그랑에 의해 근대적 개념으로 설치 완성됐으며, 하수관망은 저지대에서의 펌프장시설이 필요하지만 원칙적으로 자연유하가 되도록 건설 되었다.

**Q** 파리 시내 하수도망의 전체 규모는?

**A** 파리의 도로망이 2,100km정도이며 하수도는 도로망보다 더 긴 2,400km정도의 시설이 있다. 또한 도로 주소와 일치하는 같은 위치 하수관망에도 도로 주소와 같은 주소가 기록되어 있어 도로와 하수도관망이 입체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귀중품을 도로배수구에 떨어뜨려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Q** 하수도의 규격이 제각각 다르며 하수도관내에 여러 개의 배관이 있는데 이 배관의 용도는 무엇이며 하수처리 등 전반적인 운영방법은?

**A** 파리의 하수도는 사람이 들어가 작업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하수도의 크기는 거주하는 인구 등 파리시내의 구역과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 하수도내에는 상수도관(음용수관), 중수도관(사용가능하지만 먹지 못함), 전기배선관, 가스배관, 통신배관, 송풍관 등이 함께 매설되어 있다. 또한 파리 시내에는 하수도 청소 등 관리를 위한 맨홀이 100m 마다 총 2만6천개가 설치되어 있다. 하수도의 청소는 작업의 효율성과 안전을 위해 반드시 4명 1개조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수도관의 하수는

바로 세느강으로 흘러들어가지 않고 오수처리시설로 연결되어 처리된다. 이 시설에서 처리된 물의 80%는 세느강으로 보내지며, 나머지 20%는 다시 파리 시내로 보내져(중수도) 길거리 청소물로 쓰인다. 파리 하수도의 특징인 이 중수도는 길거리 청소원들이 빗자루로 거리를 청소한 뒤 도로변에 있는 중수도 및 측면 수구를 통해 물로 도시의 묵은 먼지와 쓰레기들을 하수구로 내려 보내면 이것이 지하 하수도관으로 들어가 처리되는 시스템이다. 파리는 이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하수관망 청소 기술과 설비들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하수관거가 막혀서 길거리가 침수되는 경우는 없었다.

**Q** 하수도내에 전기·통신·가스·상수도 및 시설운영에 필요한 전등 등 전기시설물들이 많이 있는데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하수도 처리 능력을 넘어설 경우 대한 대책이 있는지?

**A** 아직까지 하수도가 범람하여 하수도내 주요배관이나 전기시설물 등이 침수된 적은 없었으며 하수도내 중요지점에 배수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우천시 침수 예방을 위해 지하에 대규모 오수저류지를 설치하여 하수도를 통해 빗물을 저류시켜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한 뒤 방류하고 있음.



☞ 하수구 내부



☞ 하수구 내부



☞ 하수구 내부



☞ 하수구 내부



☞ 하수구 청소 모형



☞ 하수구내 주소 표시

☞ 파리의 연평균 강우량은 600mm정도로 연평균 골고루 분포한다. 연평균 강우량이 1,500mm에 여름철에 집중되어 있고, 인구·도시의 규모 등 모든 것이 다른 상황에서 파리시의 하수관망과 우리군의 하수관망을 단순비교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하수관망 청소 및 관리 기술과 장비를 끊임없이 개발하고 적용하는 노력은 본받아야 할 것이다.

또한 모두가 기피하는 하수관망 마저도 관광 상품화하는 파리시의 지혜와 노력은 우리도 배워야 할 과제일 것이다. 우리군도 합천댐, 황강 등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 자원을 활용하고 환경문제와 연계한 교육프로그램, 현장 방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청정 합천의 이미지를 확대하고 관광상품화 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 그리고 우리군을 비롯한 우리나라 대부분의 경우 상수도, 하수도, 도시가스 배관, 전기·통신 등이 개별적으로 시내 곳곳에 산발적으로 설치되어 있어

거의 매년 이들 시설의 신설 및 보수를 위해 도로가 파헤쳐지고 있으며 작업 중 다른 시설을 파손하여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등 체계적인 관리에 커다란 어려움이 있으며 많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다. 당장은 공사기간이 길어지고 많은 예산이 필요할지 모르나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사회 기반 시설물을 규모가 가장 큰 하수도내에 같이 설치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 ◆ 개선문, 샹젤리제 거리

- 방문일 : 2017. 11. 18 (토)
- 콩코르드 광장에서 북서쪽으로 2.2Km 거리 샹젤리제 대로와 서쪽 끝 샬 드골 광장에 웅장하게 우뚝 서 있는 개선문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기념물 중 하나이며 프랑스 영광의 역사와 국민적 자부심에 대한 강력한 상징물이다. 로마의 티투스 개선문에서 영감을 받은 이 개선문은 프랑스 황제 나폴레옹 1세가 1806년 아우스터리츠 전투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만들게 한 것으로 지름 230m의 원형 광장에 높이 51미터, 너비 45미터의 세계에서 가장 큰 개선문이다. 이 개선문과 그 주위를 둘러싼 샬 드골 광장은 파리에서 가장 유명한 장소라고 말할 수 있다. 샹젤리제를 비롯해 12개의 대로가 이곳으로부터 출발하는데 이 광장이 에투알(별) 광장으로 불리지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이다. 개선문 바로 아래에는 1920년 제1차 세계대전 휴전기념일, 한 무명용사가 이곳에 안장된 후 국가 통합과 화해의 상징이 되어 왔다. 오늘날 무명용사 기념비 앞에는 두 번의 세계대전을 기념하는 꺼지지 않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다.
- 샹젤리제 거리는 개선문을 기준으로 뻗어 있는 12개의 방사형 길 중에 콩코르드 광장까지 일직선으로 뻗어 있는 1,880m의 직선

도로로서, 도로의 양쪽에는 마로니에, 플라타너스 등의 가로수가 울창하다. 동쪽은 너비 300~400m, 길이 700m의 산책용 공원이 있으며 프랑스인들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거리라고 자부하는 명소이자 파리 시내 최대 변화가이다. 양쪽에는 파리풍(風)의 호텔 · 레스토랑 · 카페 · 극장 · 영화관 · 상점들이 늘어서 있고, 대통령 관저로 사용되는 엘리제궁(宮)을 비롯하여 항공 · 해운회사 · 자동차 전시장 · 고급 의상실 등의 건물이 많다



☞ 개선문

☞ 상젤리제 거리

☞ 상젤리제 그 큰 거리에도 우리의 네거리처럼 공중에 거리를 가로지르는 큰 신호등이 매달려 있지 않다. 다만 횡단보도 좌우측에 기둥처럼 신호등이 서 있는데 아래위로 두 개(위쪽에 큰 신호등이, 승용차 운전자 눈높이 정도에 조그만 신호등이 하나)가 있었다. 근데 신호등이 좌우측에만 있으면, 최소한 신호등 앞에 있어야 신호를 볼 수 있으니 앞으로 나갈 수가 없다. 결국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에서 속도를 늦춰서 주의할 수 밖에 없고 또 차량용 신호등을 보기위해서 횡단보도 끝으로 시선을 옮기면 자연스레 보행자의 위치나 상황을 파악할 수 있어 보행자 보호에 유용한 시스템인 것 같았다. 신호등의 위치선정에서부터 보행자 중심의 교통체계를 만들어 가는 선진교통 문화가 아닐까. 우리군도 군청사거리에 로타리가 설치 된지 몇 년이 지났지만 로타리 주변 횡단보도로 인해 차량정체 및 보행자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는데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면 시범적으로 설치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 ◆ 드라베이 레지던스 요양원(RESIDENCE L' ABBAYE)

○ 방문일 : 2017. 11. 18 (토)

○ 드라베이 레지던스 요양원은 1979년 파리 근교 4개 도시에서 공동으로 투자하여 수도원을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로 개축한 것이다. 이곳은 아직 혼자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건강 수준을 가진 노인들이 한 건물에 원룸식으로 사는 곳으로 파리 근교 4개 도시에서 고령자 및 장애를 가진 사람 등 총 300여 명이 함께 살



☞ 요양원 전경

수 있다. 이 시설에는 사회와의 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유치원, 탁아소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입소자 편의와 여가활용을 위한 마트, 약국, 학원, 식당, 미장원 등이 있다. 이 곳은 시설의 쾌적함과 더불어 친절한 직원, 유치원 등 사회와 다르지 않은 환경으로 노인에게 편안함과 사회로부터 격리되지 않았다는 안도감을 주고 있다. 공동주택이라 공동으로 하는 프로그램 및 공동의 공간이 많으나 개인의 공간 또한 존중해야한다고 강조하는걸 들으며 단체 활동도 좋지만 개인의 특성과 가치 또한 확실히 존중하고 있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았다.

○ 방문 질의 및 답변내용

**Q** 시설 입소비용은 얼마정도 인지?

**A** 장애인이나 생활이 어려운 노인의 경우 1일 7유로, 18유로, 30유로의 3단계를 적용하고 있으며 일반인의 경우 1일 74.58유로의 입소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Q** 입소비용이 많지는 않은지. 정부에서 지원은 해주고 있는지?

**A** 공립이라 사립에 비해 많지는 않으나 파리 근교라 타 지역에 비

해 많은 편임. 그러나 국민소득이나 연금소득에 비하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님.

Q 입소를 위한 대기자는 많은지?

A 공동투자한 4개 자치단체에 똑같이 시설을 배분하였으며 해당 자치단체 주민은 해당자치단체에 배정된 시설만 입소가 가능함. 전체적으로 입소대기 기간이 길지는 않음

Q 시설운영에 대한 정부나 자치단체의 지원여부 및 시설내에 입주해 있는 서비스 업소(요가·미술학원, 미장원, 식당, 약국 등)의 운영방식은?

A 공동투자한 4개 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음. 종사원들도 대부분 한국의 공무원이나 준공무원으로 판단하면 되며 입주업체는 비영리 단체들로 구입한 원가에 판매하고 있으며 서비스업소의 가격도 매우 낮은 편임(입소자에 한함).

Q 입소인원과 근무인원 및 상주의사가 있는지?

A 현재 입소인원은 209명이며 근무자는 150명 정도됨. 노인5명에 근무자 7명 정도가 필요함. 간호사 2명과 사회복지사 3명이 상주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주치의 제도로 의사는 상주하고 있지 않음.

Q 시설운영 전반에 대해?

A 우리시설은 개개인의 인격과 프라이버시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가족이라도 입소자의 허락이 없으면 입소자 방에 들어 갈 수 없음. 또한 사회와의 단절 예방을 위해 일반 주민들도 자유롭게 시설 출입이 가능하며, 시설내 탁아소, 유치원 등을 운영하고 있고, 시설내 서비스 업소인 학원, 식당, 미장원, 약국, 마트 등은 일반 주민들에게도 개방되어 있음.



☞ 요양원 개인 객실



☞ 요양원내 공동 공간



☞ 요양원내 식당



☞ 요양원내 미장원



☞ 질의 응답



☞ 방문 기념품 전달

☞ 우리나라도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과 더불어 노령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으며 우리군의 경우는 이미 초고령화로 군의 존립마저 위기를 맞고 있는 실정이다. 보험 및 연금 등 개개인의 노후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노인복지에 대한 정부와 자치단체의 지원확대로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더

불어 노령인구들이 경제적 어려움 못지않게 느끼고 있는 사회와의 단절을 예방하고 개개인의 인격과 사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인복지시설의 운영 방법 개선 등 노인복지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한다.

## ◆ 루브르 박물관

○ 방문일 : 2017. 11. 18 (토)

○ 영국의 대영 박물관, 바티칸시티의 바티칸 박물관과 함께 세계 3대 박물관으로 꼽히는 루브르 박물관은 나폴레옹 대원정의 산물인 이집트·메소포타미아의 고대 문명에서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미술품, 그리고 르네상스의 예술품에 이르는 방대한 컬렉션을 자랑하고 있다. 루브르 박물관은 그 소장 작품 숫자만 치

더라도 약 40만 점에 달하므로 한 작품에 1분씩 관람한다 해도 4개월을 꼬박 보내야만 하는 거대한 박물관이다.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모나리자>, 모네, 고흐, 피카소의 작품들을 전시하고 있는 루브르는 원래 궁전으로 지어졌으나 오랫동안 증개축을 하여 '미로 같다'는 말도 듣고 있으며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 루브르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바로 입구의 유리 피라미드이다. 이 조형물은 1989년, 루브르 건물 전체를 박물관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계획안의 일환으로 건설되었는데 건축 당시 큰반대를 불러일으켰지만 지금은 루브르의 상징으로 당당히 자리 하고 있다.



☞ 루브르 박물관 전경



☞ 루브르 박물관의 피라미드



☞ 루브르 박물관 내부

☞ 역사 · 예술 · 민속 · 산업 · 과학 등 고고학자료 · 미술품, 기타 인문 · 자연에 관한 학술적 자료를 수집 · 보관 · 진열하여 교육적 배려하여 일반 민중의 전람에 이바지하고, 또 그들의 자료에 대하여 조사 · 연구하는 시설을 박물관이라 한다. 박물관은 과거에는 소장품을 전시하고 전시된 작품을 감상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었으나 현재는 교육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중요한 임무로 인식하여 많은 교육 프로그램을 연구하여 관람객들에게 기쁨과 즐거움, 휴식과 여가를 제공하는 ‘평생 교육의 장소’로 관람객과 함께 소통하는 공간으로 바뀌고 있다. 단순 비교는 어렵겠지만 합천 박물관은 전시된 소장품의 관람을 목적으로 관람객을 유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단순히 역사적 유물을 보관하는 창고 이미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박물관의 공간적 특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도입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변화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루브르 박물관에 피라미드를 설치했던 프랑스인의 획기적인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것 같다.

## ◆ 에펠탑

- 방문일 : 2017. 11. 18 (토)
- 1889년 프랑스혁명 100돌 기념 '파리 만국박람회(EXPO)' 때 세워진 높이 약 320m의 격자형 철탑으로, 탑의 이름은 이 탑을 세



☞ 사요궁에서 바라 본 에펠탑 전경

은 프랑스 건축가인 에펠의 이름에서 유래한다. 건립될 당시 탑의 높이는 약 300m로 무게는 9700t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고층건물이었고, 꼭대기에 첨탑, 안테나가 덧붙여져 320m 이상이 되었다. 에펠탑 건축 당시에는 우아한 파리의 거리와 어울리지

않는 '철골 덩어리'라며 지식인들의 비난을 받았다. 그러나 완공된 후에는 새로운 예술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지지를 받았고, 오늘날에는 파리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았다. 에펠탑은 20년 기한이 끝나는 1909년에 해체될 예정이었으나 그 무렵 발명된 무선 전신 전화의 안테나로 사용되어 탑의 해체는 중단되었다. 1975년에는 회전식 표지등이 설치되어, 오늘날에는 파리의 야경을 아름답게 채색하는 '빛의 탑'으로도 사람들을 매료 시키고 있으며 1991년에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 120년 전에 건축된 에펠탑에 올라서 바라보는 계획도시 파리!

파리는 도시계획가, 조경가, 건축가들에 의해 계획적으로 가꾸어진 도시다. 19세기 나폴레옹 3세때부터 시작된 파리대개조 운동에서부터 라데팡스 개발, 그랑 프로젝트에 이르기까지 100여년 넘게 전문가들이 마련한 기본적인 도시계획의 정신과 개념이 면면히 이어져 오늘날 파리를 더욱 풍성한 문화 도시로 만든 대 프로젝트가 완결인 셈이다. 이처럼 파리는 역사성과 전통성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도시기능을 수용하는 업그레이드 전략에 따라 치밀하면서도 아름답게 꾸며진 것이다. 파리 업그레이드 전략은 정파의 이해를 떠나, 정권이 바뀌더라도 면면히 이어져 내려왔다. 파리는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다.

## ◆ 세느강

○ 방문일 : 2017. 11. 18 (토)

○ 총 길이가 776km에 달하는 파리의 심장 세느강은 시내 중심부를 가로지르며 연중 유수량이 일정하고, 완만한 흐름을 보여 유람선 관광에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세느강을 따라 흐르는 유람선에서는 주변의 관광지를 볼 수 있는데, 파리시내의 고풍스런 건축물과 유명한 건축물인 루브르 박물관, 노트르담 대성당, 오르세 미술관, 퐁네프, 에펠탑 등 프랑스의 역사를 보여주는 유서 깊은 건축물과 현대에 지어진 다양하고 독특한 건물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가는 곳마다 아름답게 꾸며놓은 다리는 세느강의 아름다움을 더욱 빛내고 있다. 1991년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선정되었다.

- 세느강에 있는 수많은 운하들은 서로 내륙 수로망을 이루고 있어서 세느강 유역에는 파리를 중심으로 루앙, 르아브르 등의 대도시가 형성되어 서로 공존하며 발전하고 있다. 파리 여행 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세느강 유람선 관광으로 유람선의 아름다움과 주변의 아름다움이 어우러져 하나의 예술작품 같은 느낌을 받는다. 이처럼 세느강을 따라 발전한 파리의 모습은 서울의 한강과 비슷하다. 하지만, 한국과는 다른 선진 문화를 알리고 바라보게 하는 시각은 감탄을 자아낼만 하다.



☞ 알렉산드로3세 다리에서 본 세느강

☞ 세느강 유람선에서 본 파리 야경

## IV. 연주소감

### ▣ 연주소감 (총평)

- 여름에는 11시까지 해가지지 않지만 겨울에는 4시면 해가 지는 유럽. 날씨, 언어, 음식, 심지어 생김새 까지 다른 유럽연수를 떠나며 방문국가와 방문지에 대해 사전에 좀 더 풍부하고 세밀한 자료를 준비하지 못한 아쉬움이 컸다.
- 이번 연수를 통해 느낀 것은 지형과 기후 문화의 차이에서 오는 다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우수한 점은 받아들여 우리것으로 만들며 우리의 뛰어난 부분은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이라는 것이다.
- 또한 이번 연수를 통해 한국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다시금 느꼈다. 유럽인들의 여유로움이나 기다림의 미덕은 높이 살만했으나 그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특히 공공부분의 민원응대나 업무 처리 속도에 있어 우리나라의 서비스 수준은 최고라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었다. 그리고 비록 국토는 좁고 부존자원은 많지 않지만 일제 강점기, 6.25동란을 겪으면서도 근면함과 성실성, 끊임없는 노력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여 괄목할만한 경제성장을 이루어낸 저력 있는 민족이라 자부한다. 그러나 경제적으로는 괄목할 만한 성과와 업적을 이뤘지만 서구유럽에 비해 상대적으로 배려심이나 양보 의식, 질서를 준수하는 민주 의식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우리도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 향상과 의식개혁을 서둘러 물질적인 면과 정신적인 면이 함께 어우러져 선진 민주국가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유럽을 선진국이라 생각하여 선진사례 조사를 위한 연수를 떠났지만 아마 년 쯤 후에는 유럽인들이 우리의 앞선 기술과 첨단 서비스를 배우기 위해 우리나라를 방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지금의 유럽인들이 훌륭한 조상과 그 들이 남겨준 문화 유산 같은 과거에 기대어 산다면 우리는 특유의 열정과 근면함 그리고 빠른 적응력으로 미래를 준비하며 현재를 살아가기 때문이다.
- 6박8일간의 유럽연수를 통하여 넓혀진 시야는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는데 매우 소중한 경험이 될 것이며 군정발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외국의 문화와 제도, 그리고 많은 시설을 직접 견학한 소중한 경험으로 다시금 우리주변을 돌이켜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어서 앞으로 해외연수에서 보고 느끼고 체험한 모든 것들을 오래도록 기억하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군정발전 및 주민복지 실현에 기여해 나갈 것을 다짐해 본다.

## ▣ 우수사례 및 접목방안

### ◆ 선진농업분야(사회적 농업)

- 사회적 농업에 대한 명확하게 구분된 정의는 없으나, 건강, 교육과 훈련, 사회통합 등의 이익 창출을 목적으로 취약계층을 서비스 대상으로 영농이나 기타 농업활동과 연계하여 제공하는 여러가지의 사회적인 서비스로 설명할 수 있다. 이탈리아의 사회적 농업은 사회적 협동조합 형태가 주축을 이루며 건강과 보건분야가 치유와 고용의 원동력이 되고 농가들도 잠재적으로 소득향상 수단으로 사회적 농업을 인식하고 있으며 국가나 지치단체에서도 농산물 판매, 국유지 우선 대부 등의 지원을 하고 있다. 이탈리아를 비롯한 유럽에서는 수요와 공급측면에서 변화가 일어나 사

회적 농업이 성공할 수 있었는데 윤리적 소비, 유기 농산물에 대한 선호, 전통식품과 지역 농산물, 슬로푸드 등이 농업에 대한 새로운 가치를 불러낸 것이며, 농가 자체에서 새로운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가능하게 된 것이다.

-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낯설고 용어자체도 생소한 사회적 농업. 하지만 농업과 농촌이 주는 사회적 영향력과 치유의 기능은 무시할 수 없다. 그래서인지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유럽의 사회적 농업과 유사한 개념의 치유농업이 대두되고 있다. 치유농업은 작물을 기르거나 동물을 사육하는 등 농촌자원을 활용하여 심리적, 정서적 문제 및 각종 질병들을 치유할 수 있으며, 발달장애 등 장애인들에게 직업훈련 및 교육을 통한 일자리를 제공하여 일자리 창출과도 연계 할 수 있는 등 활용분야가 다양하다. 농업부분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 및 복지부분은 경제적이면서 효과 높은 서비스를 농업부분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이다.



☞ 트라토레 농장의 운영에 대한 설명을 듣기 전에 농장 종사원과 촬영한 사진 농작업 광경이나 크리스마스에 사용하기 위해 가꾸고 있는 화분을 선물로 줄 때 당황스러웠으나(제대로 가꾼 화분으로 보기 어려움) 추후 사회적 농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해할 수 있었음. 지적장애인인 종사원들의 활짝 웃는 모습에서 만족도를 느낄 수 있음.

- 현재 우리군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치유농업은 대부분 원예치료와 산림치료에

국한돼 있고 최근 재할승마 등으로 분야가 확대되는 추세이기는 하나 아직은 결음마 단계에 머물러 있다. 우리군에서는 ‘치유’ 라는 기능에 중점을 두고 이용대상에 따라 일반농업과 산림분야 등 다양한 방면으로 세밀하고 조직적인 육성계획을 세우고 다양한 치유프로그램을 개발하며 관련 전문가와 적극 협력해 나가는 등 선제적 대응으로 일반적인 체험, 관광의 수준을 넘어 농업인의 소득자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제도와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 ◆ 노인복지분야

-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이 가장 낮으며 노인연금 1위의 노인 천국 이탈리아. 노인복지에 혜택이 집중되다 보니 아동 및 청년층의 복지 혜택이 줄어 청년 실업률이 40%에 이르며 경기침체로 인한 재정위기로 복지보다 성장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나라이다. 그리고 20세기 초에 고령화 사회에, 1970년 경부터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프랑스. 두 나라를 비롯한 유럽 선진국들의 공통점은 뛰어난 연금제도와 사회보장 등 복지제도를 통해 노인들의 소득보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크다고 할 것이다. 또한 탈 시설화 및 사회적 연대 등을 통해 사회적 단절을 예방하며 개인의 인격과 사생활을 존중한다는 것이다.
- 우리나라 노인인구의 대부분이 특별한 소득이 없으며 현재의 연금제도로는 여유로운 노후생활을 보장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러다 보니 경로당이나 도심 주변 공원 등에서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는 노인들이 우리에게서 흔한 광경이 되어 버렸다. 또한 질병이나 노환 등으로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등 복지시설에 입소할 경우 사실상 사회와 단절된 격리된 생활이나 다름없으며 개인의 인격이나 사생활을 보장받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과 더불어 우리나라도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군은 이미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서 있다. 좀 더 나은 노인복지 실현을 위해 시설 및 운영방법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할 때인 것 같다.

## ◆ 문화 · 관광분야

- 고대 로마제국의 찬란한 역사와 르네상스의 화려한 꽃을 피운 나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세계 유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방대한 문화유적을 발판으로 관광산업을 발전시켜 세계 3 ~ 4위권의 관광 수입을 올리는 세계 최대의 관광대국 이탈리아. 파리만 연간 1억 명의 관광객이 방문한다는 프랑스. 밀려드는 관광객들 때문에 임대료가 치솟고 쓰레기 투기 등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발생되어 관광객의 방문을 제한하기 위해 도시 진입세, 외국인 단체 관람시 현지가이드 의무채용 등 규제 정책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관광객들로 몸살을 앓고 있는 나라들이다. 이 두나라 뿐 아니라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공통적인 것은 고대의 문화유산을 그대로 잘 보존해 왔다는 것이다. 도로가 좁으면 좁은 대로 불편함을 참고, 어떠한 개발사업도 문화재 보존에 우선할 수 없으며 발굴 및 보존에는 최선을 다하지만 굳이 복원하려 하지 않는 그들. 수백년에서 이천년이 넘는 긴 시간동안 수많은 전쟁과 왕조의 변천, 정권의 교체가 있었음에도 찬란한 문화유산이 보존되어 오고 있는 것은 그들 모두에게 옛것을 소중히 하고 보존하려는 마음가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일 것이다. 선조들의 역사와 문화를 소중히 여기며 자신들의 불편함을 감내하면서 꽃피운 소중한 자원으로 관광대국을 이룩한 것을 보고 후손들에게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대목이다.

- 지진과 전쟁 · 약탈 등으로 훼손되어 뼈대만 남은 듯 한 포로로마노나 로마

시내 곳곳에 기둥이나 흔적만 있고 복원하지 않은 유적들과 화재로 훼손되자마자 바로 복구에 착수해 복구가 완료된 우리의 남대문. 어떤것에도 절대적 진리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선조들의 사상과 뛰어난 기술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겉모습만 복원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문화재 관리 정책인지 자문해 본다. 우리군도 가야사 재조명에 따라 삼가고분군 발굴·연구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중이다. 발굴과 연구에 최선을 다하고 보존과 복원에 대해 심각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다. 루브르·바티칸 박물관 등에서 보듯이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고쳐서 활용한다는 문화재생산업의 롤 모델을 보았으며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계획에 따라 전통에 혁신을 더하다면 관광산업에서 우리군도 세계적인 도시와 경쟁을 할 수 있을 것이란 확신을 가져본다.

- 시신운반용으로 사용되던 곤돌라, 에펠탑, 루브르박물관의 피라미드, 혐오시설에서 박물관으로 탈바꿈한 파리의 하수구... 모두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고의 전환에 따른 산물로 지금은 그 지역의 대표적인 랜드마크 관광지로 자리잡아 수많은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지며 관광수입 및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우리군도 해인사, 함천호, 황매산 등 관광자원을 활성화하여 최고의 관광용군으로 거듭나기 위한 획기적인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
- 바티칸 박물관, 루브르 박물관 등 특정관광지에서 반드시 현지인 가이드를 동반하도록 하여 자국민에 대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며 단체 관람객에게 관람시간 제한을 두어 문화재를 보호하는 정책 등은 우리군에서도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 ◆ 교통분야

- 이탈리아나 프랑스와 같이 문화유산의 보존을 우선하는 정책에 따라 문제가 되는 것이 교통난 이었다. 거의 도시전체가 세계문

화유산인 특성상 도로는 좁고 복잡하며,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었다. 이러한 교통난과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대형차량의 시내진입을 금지하고 있었으며 대중교통의 확충, 창원시의 누비라 등 전세계 주요도시의 롤 모델인 파리의 자전거 대여시스템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었다. 심각한 교통난으로 오토바이와 자전거를 이용이 활성화 되어 있고 도로를 주행하는 승용차의 대부분이 소형승용차들로 그들의 실용성과 합리성을 엿볼 수 있었다. 더불어 우수한 시민의식으로 항상 보행자를 우선하고, 상대를 배려하며 양보하고, 질서를 준수하며 서두름 없이 기다리는 느긋함으로 슬기롭게 대처하고 있었다. 또한 이탈리아나 프랑스 어디든 인도에는 노상적치물이 없어 보행자의 통행로가 확보되고 파리의 경우 상젤리제 거리처럼 차도보다 넓은 것 같이 잘 정비된 인도를 보며 차도 중심의 우리나라의 교통 정책과 대비해 깊은 감명을 받았다. 또한 연수기간 중 이제는 정착되어 철저히 지켜지고 있는 버스운행시스템에 대해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 운전중에도 의무적으로 유식을 취해야 하며, 하루 8시간 이상 운행할 수 없도록 제도화 되어 있고 운행기록이 버스의 블랙박스에 기록되어 불시 점검된다고 하였다.

- 대형차량에 세단형을 선호하는 권위적인 자동차 문화, 레저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자전거 이용,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노상 적치물, 차량 중심의 교통문화, 조금만 지체되어도 경적과 욕설이 난무하고 보복운전에 관련된 뉴스를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교통 현실이다. 도로의 상태 등 하드코어적인 측면만 비교한다면 과연 여기가 선진국이 맞나 싶을 정도로 우리와 비교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연수기간 내내, 심지어 무단횡단을 하고 있음에도 경적한번 울리지 않고 기다려 주는 그들의 선진 교통의식 수준을 보며 존경과 부러움 한편으로는 씩씩함을 느낄 수 밖에 없었다. 뛰어난 하드코어에 맞는 시민의식을 갖출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반성과 성찰

그리고 노력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대형버스·화물차의 과로에 따른 대형사고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우리현실에 비추어 볼 때 버스운행시스템은 지금 즉시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 ◆ 기반시설 분야

- 로마나 파리시의 경우 엄격한 규제에 제대로 된 간판을 볼 수 없었다. 무분별하고 화려함만을 추구하는 우리의 간판문화와는 확연한 차이를 느낄 수 있었다. 또한 도시미관을 고려한 전기선 및 통신선의 지중화로 도로에 전신주와 전기선을 거의 볼 수 없어 깨끗한 도심환경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파리시의 잘 조성된 하수구내에 상수도, 정수, 가스배관, 통신선, 전기선 설치하고 혐오시설 일부를 박물관으로 활용하는 등 이용을 극대화 하고 있었다.
- 먹는물의 안정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수질개선을 위해 우리군도 하수관거 설치 및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노후된 하수관을 교체하며 지하지도 작성 등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파리의 경우처럼 사회기반 시설을 통합하여 설치·관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 개선문을 중심으로 잘 정비된 도로망, 상젤리제 거리의 가로수, 470여개의 도심공원 등 몇 백년 전 도시계획을 했는데도 현재까지 정비가 잘된 기반시설과 건축물들이 조화롭게 자리 잡고 있다. 우리군도 핫들지구의 관리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고 있는 중이다. 이미 핫들 일부 지역 및 강양교 개통으로 접근성이 좋아진 임북 일부 지역은 난개발에 따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미래 백년 아니 수백·수천년을 내다보는 성실하고 세밀한 계획수립과 지역특성을 살리수 있는 도시개발로 군민이 편안하고 살기 좋은 합천으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 자연재해나 태풍이 거의 없고 우리와 지리적·환경적·문화적·역사적 조

건이 다른 유럽의 도시들이 우리의 단순 비교사례는 될 수 없으므로 무조건 따라가는 것보다는 철저한 비교 분석을 통해 우리군의 지역여건에 알맞은 도시계획 방안을 도입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 ◆ 기 타

- 연수기간 중 현지의 한국인 가이드가 우리나라와 가장 비교를 많이 한 것이 복지와 교육이었다. 외국의 유학생임에도 정부의 지원으로 출산과 육아의 부담을 덜 수 있었으며 지금은 파리를 위해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뛰어난 복지제도. 한국은 학교에서 공부를 시키지만 유럽에서는 사회를 살아가고 직업을 선택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사회규범 등을 가르치는 곳이라는 말이 지금도 기억에 남는다.
- 그리고 연수기간 중 가장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은 그들의 흡연 문화였다. 실내 일부지역을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에서 흡연이 가능하였으며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밀집된 올림픽 스타디움에서는 경기관람에 지장을 줄 정도였다. 개인의 흡연권리를 우선하는 그들과 공공의 복리를 우선하는 우리와의 단순한 문화차이라고 하기에는 쉽게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었다.
- 자국민을 보호하고 문화재 보수비용 증당을 위해 일부 유럽국가에서 부과하는 도시진입세. 국가주도의 경제성장기 막대한 예산과 정책적 지원을 통해 도시화를 이루고 월등히 나은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대도시와 그것을 그들만의 권리인양 누리고 있는 도시민들.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각종 문화혜택의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혼잡한 대도시의 교통 및 주거난 등 사회문제 해소를 위해 수도권 및 대도시에서 거주하는 국민과 재화에 대해 도시세, 혼잡세 등 도시진입세와 유사한 세금을 부과하여 상대적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낙후되어 있는 지방의 발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검토해 보는 것은 어떨까?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고 우리에게 맞게 적용할 것인가가 중요할 것이다.